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80)

得 逃 還 者 三

득 도 환 자 삼

도망하여 돌아온 사람은 세 명이었다.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트럼프가 미국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온 세상을 들쭉서 놓은 것 같다. 이른바 관세폭탄이라는 것 때문이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품에 관세를 과거에 비하여 엄청 많이 붙이겠다고 하는데서 비롯되었다. 이른바 미국 제일주의를 앞세운 조치이다.

그러나 미국이 언제든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정책을 펼치지 않은 적이 있었을까? 다만 전에는 이른 바 상대방과 원원하는 것이 미국에 더 이롭다고 생각하였던 것에 비하여 지금 트럼프정부는 미국과 무역을 하면서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에게 미국의 국부(國富)가 새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인위적으로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의 말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관통하여 항로를 단축시킨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미국이 확보하고,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하다 못하여 그동안 이웃으로 잘 지내던 캐나다를 미국의 한 주로 하겠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이러한 조치나 그 말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전 세계가 미국 것이 되어야 그 확장정책이 그칠 것이 아닌가?

역사에서 강대국은 언제나 약소국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그 힘이 못미치면 영향력이라도 최대한 행사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려 한 것은 예나 오늘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가까이 있는 중국의 중화주의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중국의 팽창주의의 다른 이름인 것이다. 하여간 지금 세계는 양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확대팽창 정책으로 몹시 불편하게 한다.

역사적으로 팽창주의를 실현하여 이웃을 통합하려 했던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 가운데 이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 했던 예로 두 경우를 들어 보고자 한다. 하나는 중원을 통일한 진(秦)이고, 몽고제국을 건설한 몽고족이다. 그러나 이들의 말로(末路)는 어땠을까?

진은 6국을 다 빼앗기에 성공하자 자기가 직접 통치하겠다고 그동안 국제질서였던 간접통치방법인 봉건제(封建制)를 군현제로 바꾸었다. 대개혁이었다. 그 이전에는 봉건제였으므로 비록 왕이라 하더라도 혹은 패권을 쥐었다고 하여도 여전히 각 지역에 있던 봉건국의 자율권이 주어졌으므로 패권을 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그런데 6국을 통일한 진은 자기가 모든 것을 직접 지배

하고 싶어서 제후 대신에 지방에 관리를 파견하여 직접 통치하려는 군현제로 바꾼 것이다. 그러나 그가 통일한 기원전 221년 이후 15년 만에 그의 아들 호해 때에 허망하게 멸망하였다. 힘에 버거운 무리한 직접통치 방법이 불가능하였음을 증명한 셈이다.

그 뒤를 이어 등장한 유방(劉邦)의 한(漢)은 진의 직접통치 제도인 군현제(郡縣制)와 전통적인 간접 통치 방법인 봉건제를 결합하여 군국제(郡國制)를 창안하고 나서 한 왕조는 전후한 4백 년 동안 그 왕권을 지킬 수 있었으니 진의 강제적 정책이 무리하였음이 증명된 셈이다.

또 몽고족은 징키스칸의 등장으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거대 제국을 건설하였다. 그래서 20세기 말에 지난 1천 년 동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징키스칸을 지목한 경우도 있었다. 그 뒤를 이은 쿠빌라이는 원(元)으로 국호를 바꾸면서 몽고와 중원지역은 물론 고려, 베트남으로 미안마로 그 세력을 뻗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때문에 아주 멀리 있던 지역에서도 지레 질겁하고 원에 조공을 바쳤다.

그런데, 섬나라 일본만은 여러 차례 사자(使者)를 보내어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도록 종용하였지만 듣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의 사자를 죽이기까지 하였다. 쿠빌라이는 일본 정벌을 결심하였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

1279년에 남송을 멸망시킨 다음 해인 1280년 8월 29일에 수군만호도원수(水軍萬戶都元帥)인 장희(張瑄)가 일본정벌에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그날로 행성평장정사(行省平章政事)를 배수(拜受)하여 범문호·이정 등과 주사(舟師)를 인솔하고 바다를 향해하여 동정(東征)하게 하였다.

일본에 도착하자 장희는 바로 배를 버리고, 평호도(平湖島)에 보루(堡壘)를 쌓고, 전함(戰艦)을 각기 서로 50보씩 떨어져서 정박시켜서 바람과 파도로 부딪쳐서 충격받는 것을 피하게 하였다. 그런데 정말로 구풍(颶風, 태풍)이 크게 일었지만 장희가 거느린 것만은 완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희는 오히려 특수한 경우였다.

이때 함께 일본 원정에 중심에 있던 실도(實都)·홍준기(洪俊奇)·범문호(范文虎)·이정(李庭)·김방경(金方慶) 등은 항해(航海)하여 평호도(平壺島)에 도착하였을 때 구풍(颶風)을 만났다. 배가 파괴(敗壞)되자, 제장(諸將)은 각기 자기만 살려고 견고하여 깨지지

않은 함선(艦船)을 끌라서 이에 올랐다.

여기에 오를 수 없었던 사졸(士卒) 10여만 명은 오룡산(五龍山) 아래에 버려졌다. 지휘관이 없게 된 무리들은 장백호(張白戶)를 추대하여 장수로 삼고 바야흐로 나무를 잘라 배를 만들어 돌아올 계획을 세웠지만 일본은 엠포야 이를 알고 몽고(蒙古)·고려(高麗)·한인(漢人)을 다 죽였고 신부군(新附軍)을 당인(唐人)이라고 말하며 죽이지 않고 이를 노예로 만들었다. 그래서 10만 명 가운데 도망하여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은 세 명뿐이었다. 속자치통감의 기록이다.

이 전쟁을 일본에서는 신(神)의 도움이 라고 하여 신풍(神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절제 없는 무한 확대정책이 빚어낸 비극일 뿐이다. 8월쯤에 일본 지역에 태풍이 볼 수 있다는 것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정벌을 나선 무지의 결과로 스스로 주저앉은 것이다.

이 때에 한림학사(翰林學士)인 왕반(王磐)이 군사가 출발하는 기일이 정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가서 간언(諫言)하였다. “일본은 소이(小夷)이고,海道(海道)는 험하고 먼데 가서 이를 이겼다 하더라도 무위(武威)가 되지 않고 이기지 못하면 위엄에 손상되니 신(臣)은 치지 않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대하다는 쿠빌라이도 이 간언을 듣지 않다가 빠져진 패배를 한 것이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압도할 것 같은 힘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 눈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한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을 최고 지도자가 모르고 고집을 피우다 처절한 실패를 하게 된다.

발써 수십 년 전부터 중국이 동북공정,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하여 팽창정책을 폈는데 이번에 미국이 관세정책 등으로 팽창을 시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무리한 팽창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고 그 나라에도 왕만 같은 참모가 있을 듯 하지만 이미 진시황처럼, 쿠빌라이처럼 팽창에 눈 먼 이들은 팽창정책을 중지할 기미가 없다.

늦었지만 자치통감이라고 읽으면서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이 원원하여 4백년 왕조를 건설한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에게서 배울 수 없을까? 그러면 10만 명이 다 죽고 세 명만 돌아오는 비극은 면할 수 있을 터인데...

고사성어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근검절약(勤儉節約)

부지런할 극, 검소할 경. 아낀다 절. 맺을 약.

부지런하고 알뜰하게 재물을 아낌.

출전 : 정약옹의 목민심서에 보면

치장(治裝) : 입지로 떠나기 전 준비, 행장을 뜻함

율기(律己) : 목민관의 자기 수양

청렴(淸廉) : 청심(淸心), 절약(節約) 등의 말이 나오는데 목민관의 자세로서 근검절약을 강조한 것이다.

금시초문(今時初聞)

이제금. 때시. 처음 초. 들을 문.

이제 막 처음으로 들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것을 들었다는 뜻

금상첨화(錦上添花)

비단금. 뒷상. 더할 첨. 꽃 화.

비단 위에 꽃을 더하다. 예나 지금이나 비단은 귀한 존재이고 꽃 역시 아름다움의 상징이므로 좋은 것에 좋은 것이 겹쳐져서 더욱 좋게 된다는 뜻을 가진 성어이다. 앞의 글자 금이 쇠 금(金)이 아니고 비단 금(錦)자이다.

부산부녀회, 벚꽃 만개하여 봄 햇살이 눈부시던 날!

제33차 안동권씨 부산부녀회 정기총회가 4월 8일 12시 ‘외식1번가’에서 개최되었다. 4월 5일 안동 시조 태사공 춘향체에 다녀온 지 사흘만인데도 30명이 조금 넘는 회원 중 25명이 참석하였다. 부녀회를 응원하기 위해 귀한 시간 내어 주신 송산 권영현 종친회장, 송계 고문님, 원광 권영호 고문님, 운산 원로회 회장, 권채영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맛있는 고기를 구워 점심 식사를 하였다. 이어서 회의가 진행되었다. 2024년에 회장단이 취임하여 2년의 임기 중 한 해를 결산하는 총회이기에 회의는 간략하게 유인물로 대체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권정희 부녀회장의 인사말에는 회원들을 향한 감사함을 가득 담았고, 이어 권영현 종친회장은 축사에서 부산부녀회가 전국의 자랑이라며 기뻐하였다. 권길삼 고문은 격려사를 통해 단합된 분위기가 너무 좋으시라며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할 것을 당부하였다.

부산부녀회 창립 멤버이신 권춘자 고문의 창립에 얹힌 애기와 부산부녀회의 상징인 연분홍 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마련하게 된 계기, 그리고 당시 후원해 주신 송계 고문님에 대한 감사 인사까지 회원들께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었다.

부녀회에서는 매년 총회 때마다 철순이 되는 회원들께 축하금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철순은 없고, 만연니 권옥태 고문의 팔순 축하금이 전달되었다. 케익에 촛불을 켜고 꼬깔을 쓴 후 다함께 축하곡을 부르며 촛불을 켜다. 마침, 원광 권영호 고문께서도 올해 팔순이라 축하받고 싶다 하시며 꼬깔을 쓰시고, 꼬깔 쓴 값 10만원을 별도로 내놓으

왕안석의 시(詩) 즉사(即事)에서 유래됨.

嘉招欲覆盃中滌(가초욕복배중독) 좋은 모임에서 만나 술잔을 거듭 비우려 하는데

麗唱仍添錦上花(려창잉첨금상화 아름다운 노래는 정녕 비단 위에 꽃을f 더한 듯하네

금의야행(錦衣夜行)

비단금. 옷 의. 밤 야. 갈 행.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돌아다님. 자랑삼아 나서지만 생색이 나지 않거나 아무 보람이 없는 행동을 비유한 말

유래 : 향우가 진나라의 도읍 함양에 입성하여 왕자를 죽이고 아방궁을 불지르고 시황제의 무덤을 파헤치는 등 잔인한 행동을 일삼았다. 또한 참고에 쌓인 금은 보화를 모두 차지하고 주색에 빠졌다.

금의환향(錦衣還鄉)

비단금. 옷 의. 돌아올 환. 시골 향.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출세를 하여 고향에 돌아가거나 돌아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크게 성공하거나 좋은 결과를 얻어서 돌아옴

금지옥엽(金枝玉葉)

쇠금. 가지 지. 구슬 옥. 잎 엽.

금으로 된 가지와 옥으로 된 잎이라는 뜻으로 임금의 가족을 높여 이르는 말. 귀한 자손을 이르는 말. 황족, 왕족을 수목(나무)에 비유한 말. 아름다운 구름의 형상을 초목에 비유한 말.



시며 축하를 유도하여 한바탕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한 회원 16명에게 개근 상품이 수여되었다. 상품은 전자렌지용 찜기 쉼트(3만원)로 모두 만족해 하였다. 이날 회의는 화기에애한 분위기로 마무리 되었다.

총회에 참석해 주신 종친회 어르신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사랑을 듬뿍 담은 찬조금 봉투를 주셨다. 부녀회 고문을 비롯한 회원들도 서로를 응원하며 찬조금을 아끼지 않았다. 늘 응원해 주시는 부산 종친 여러분과 시조 춘,추향계 때마다 반갑게 맞이하며 정찬해 주시는 전국의 종친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1992년 창립하여 지난 33년 동안 깊게 뿌리내린 ‘안동권씨 부산부녀회’가 앞으로도 권문의 자부심으로 타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권정희 부산부녀회장

〈2025년 4월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3.22. ~ 4.25.
총 납부자 119명 / 지사 5곳

(이름순)

총 5,720,000 단위:원

권갑경(원주)30,000	권상렬(대구) 30,000	권영석(서울은평) 30,000	권오진(거창) 30,000	권종웅(대구) 30,000	권혁구(서울서초) 30,000
권경상(군산)30,000	권상호(봉화) 30,000	권영식(대구 만촌로) 30,000	권오진(서울강북 삼양로) 30,000	권종정(대구) 30,000	권혁동(강릉) 30,000
권경자(안동) 30,000	권석순(안동) 30,000	권영연(양평) 30,000	권오진(서울강서) 30,000	권주철(서울종랑) 30,000	권혁모(서울구로) 30,000
권광열(거제) 30,000	권석조(대구) 30,000	권영완(서울성북) 30,000	권오진(안동) 30,000	권주현(인천) 30,000	권혁모(여주) 30,000
권기성(안동 금곡길) 30,000	권성덕(영덕) 30,000	권영일(제천) 30,000	권오창(안동) 30,000	권중천(부산) 30,000	권혁문(강릉) 30,000
권기안(용인) 30,000	권세원(대구) 30,000	권영조(봉화) 30,000	권오택(안동) 30,000	권창순(가평) 30,000	권혁민(서울광진) 30,000
권기정(안동 수상동) 30,000	권수영(청주) 30,000	권영준(인천) 30,000	권오현(서울구로) 30,000	권청일(대구) 30,000	권혁일(강릉) 30,000
권기진(예천) 30,000	권수원(상주) 30,000	권영진(성남) 30,000	권오훈(서울은평) 30,000	권충현(대구) 30,000	권혁준(창원) 30,000
권기항(대구) 30,000	권순걸(영주) 30,000	권영택(대구) 30,000	권오홍(경산) 30,000	권태두(포항) 30,000	권혁채(포항) 30,000
권기현(대구 구암동) 30,000	권순석(안동) 30,000	권영호(부산 사하구) 30,000	권옥경(원주) 30,000	권태상(서울종랑) 30,000	권혁화(성주) 30,000
권길웅(상주) 30,000	권순혁(안동 거북골길) 30,000	권오강(예천) 30,000	권원안(대구) 30,000	권태석(대구) 30,000	권형근(서울금천) 30,000
권대성(서울동대문) 30,000	권승오(강릉) 30,000	권오경(남양주) 30,000	권윤기(성주) 30,000	권태수(구미) 30,000	권형순(서울금천) 50,000
권대은(영천) 30,000	권영구(아산) 30,000	권오곤(진주) 30,000	권은동(강릉) 30,000	권태운(원주) 30,000	권호(완주) 30,000
권대중(안동) 30,000	권영구(안동 구미리) 30,000	권오룡(구미) 30,000	권인택(수원) 30,000	권태원(예천) 30,000	권희철(부여) 30,000
권대춘(대구) 30,000	권영근(밀양 중앙로56) 30,000	권오삼(영주) 30,000	권재모(산청) 30,000	권태칠(창원) 30,000	지사지국 납부지역
권동기(안동) 30,000	권영근(양평 수곡리) 30,000	권오선(안동 용상동) 30,000	권재수(진주) 30,000	권태혁(안동 용상동) 30,000	수원종친회(10부) 300,000
권명준(강릉 원대로) 30,000	권영대(영주) 30,000	권오순(대구) 30,000	권재영(안동) 30,000	권태화(대구) 30,000	부호장공파(15부) 300,000
권문섭(구미) 30,000	권영복(서울성북) 30,000	권오열(강릉) 30,000	권재용(통영) 30,000	권태화(인천) 30,000	부산종친회(150부) 1,000,000
권병문(서울금천) 20,000	권영복(제천 오토로) 30,000	권오익(안동) 30,000	권정섭(고령) 30,000	권태환(양주) 30,000	매현공중중(22부) 440,000
권복성(옥천) 30,000	권영부(김포) 30,000	권오정(포항) 30,000	권정수(창원) 30,000	권태훈(대구) 30,000	통영종친회(8부) 100,000
권봉헌(포항) 30,000	권영상(강릉) 30,000	권오준(고양) 30,000	권종수(대구) 30,000	권필원(서울금천) 30,000	

♣연간 종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 ♣♣ 납부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오니 대중회로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